

경제

LED 보급 늘리고 금형 단지 조성

광주시 주력산업 고도화·신성장동력 육성·서민경제 보호 집중

민선 5기 후반기 경제분야 9대 시책 발표

광주시는 3일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육성, 서민경제 보호 등 민선 5기 후반기 경제 분야 3대 목표를 제시하고 LED조명 시범도시 조성을 비롯한 9대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 100만대 생산을 목표로 진곡산단에 44만㎡ 규모의 차 부품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2015년까지 1871억원을 투입해 클린 디젤 핵심부품 개발에 나선 계획이다.

로봇기술을 결합한 생활지원 로봇을 실용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의 근간이 되는 금형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를 위해서는 평동산단 1, 2차 단지에 이어 진곡산단에 8만여㎡ 규모로 20여개 금형 관련 기업을 집적화 단지를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역시 100억원 규모에서 170억원 규모로 확대됐고, 전국 최초로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상품이 개발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은-신보, 유망서비스기업 지원 협약 2일 오후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사진 오른쪽 네번째)과 KDB산업은행(은행장 강만수·왼쪽 네번째)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내수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서비스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 한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유망서비스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상승률 MB정부 최저 연평균 5.0% 노무현 정부 절반도 못미쳐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증가율과 명목상승률은 물론 실질 상승률도 이명박 대통령(MB) 정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 요인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기간(2008~2011년 결정)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0%로 노무현 정부(10.6%)의 절반에 못미쳤다. 김대중 정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9.0%, 김영삼 정부 기간 8.1%였다.

금융보호원 설치·저축은행 제재 강화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위안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해 금융 관련 분쟁 발생 시 500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광주세관 장두혁씨 2분기 '세관명인'

유용석·정현중·정우영씨 유공자 선정 광주소세관(세관장 정세화)은 3일 통관분야에서 탁월한 공을 세운 장두혁씨를 2012년 2분기 '세관명인'으로 유용석 등 3명은 업무분야별 유공자로 각각 선정했다.

공정위, 판매수수료 관련 이마트 현장조사

판매수수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대형유통업체 이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2일 서울시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 조사인력 16명을 투입해 판매수수료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고 업계 관계자가 3일 전했다.

축산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გადა 전가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형마트·백화점·TV 홈쇼핑과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 10곳중 4곳 "자금조달 더 어려워져"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지난해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51개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39.9%가 '자금조달 사정이 지난해와 비교해 더 곤란해졌다'는 답변을 내놨다.

은행 거래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높은 금리 및 수수료'(20.9%), '재무제표위주 평가'(20.4%), '신규대출 기피'(17.3%) 등을 호소했다. 응답 업체의 49.3%는 하반기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원할해질 것'이라는 답변은 12.9%에 그쳤다.

"성실 기업·납세자 지원" 전례라 나주세무서장 취임



전례라 나주세무서장이 2일 취임식을 갖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성실한 기업과 납세자는 세법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지수 1,867.82 (+16.17), 코스닥지수 493.91 (+3.48), 금리(국고채 3년) 3.29% (-0.01), 원·달러 환율 1,138.30원 (-7.80)

여행 상품 광고: 자유투어, 자유여행, 패키지여행, 항공권, 호텔, 렌터카 등 다양한 여행 상품 소개